비교문화연구 제79집 (2026.10) pp. 233~262

AI 활용 중국어문학 교육 연구의 현황과 중국 고전문학 교육의 과제

– 송사(宋詞) 〈우림령(雨霖鈴)〉의 생성형 AI 이미지화를 통한 고전 리터러시 진단 시론*

이 은 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고는 AI를 활용한 중국어문학 교육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중국 고전문학 교육의 공백이 지닌 성격을 밝혀 AI 활용 중국 고전문학 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학 영역의 기존 연구는 활용 방안의 제안에 비해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데, 본고는 이를 연구자의 무관심이 아니라 측정의 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효과의 검증에 앞서 무엇을 확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림령〉을 생성형 AI로 이미지화한 수업 사례를 시론적 예시로 재구성하여, 산출 이미지에 드러나는 세 가지 검토 지점과 그 판단 근거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AI가 산출한 이미지는 완성도를 평가할 대상이라기보다 학습자의 읽기를 가시화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어긋남을 식별하고 그 근거를 밝히는 일 자체가 고전 리터러시의 작동을 보여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AI를 활용한 중국 고전문학 교육의 설계와 평가에서 확인의 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생성형 AI, AI 활용 교육, 중국 고전문학 교육, 고전 리터러시, AI 이미지 생성, 송사(宋詞)

* 본 연구의 문헌 목록 대조, 도표 제작, 영문 초록 번역 및 교정에 Anthropic의 Claude Opus 5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분류・수치・서술은 저자가 최종 검토하였다.

www.kci.go.kr

Ⅰ. 들어가며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교수자의 선택 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관련 고민 또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텍스트 생성에서 출발한 AI 도구는 이미지와 영상, 음성 등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각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가 날로 다양해지는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교수자의 준비 속도를 앞지른다는 데 있다. 수업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도구를 활용할 것인지, 학생 과제에서는 어디까지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AI 도구 활용이 학습 목표 도달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버전 업데이트와 새로운 도구가 등장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특히 마지막 물음은 AI 모델의 선택이나 사용 규칙의 문제와 성격을 달리한다.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근거로 삼을 것인지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고전문학 교육에서는 이 부분이 좀처럼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도 중국 고전문학 관련 교과를 운영하며 같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수업에 접목해 보아도 의문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때에 따라서는 AI 도구 소개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데 수업의 절반 이상이 소요되어, 정작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습자가 AI를 활용해 제출한 과제물에서 어디까지를 학습자 자신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학습자마다 AI를 다루는 숙련도에도 큰 차이가 있어 수업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물음은 개별 수업의 운영 방침 변경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고, 결국은 AI를 활용한 교육이 학습자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라는 물음으로 수렴되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답하려면 학습자에게 남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마주해야 했다.

www.kci.go.kr

이 물음에 답을 구하는 첫 단계로 관련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I 활용 중국 고전문학 교육 연구가 가진 공백을 확인하게 되었다. AI를 활용한 중국어문학 교육 연구는 최근 급증하였으나 상당수가 어학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문학 영역의 연구는 소수에 그치며 교육 효과의 확인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이 연구들은 주로 활용 방안의 제안과 수업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AI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자의 사고와 학습 전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고의 논의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고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수집된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중국어문학 교육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고전문학 교육의 자리를 확인한 뒤, 재구성한 수업 사례를 시론적 예시로 삼아 고전문학 교육에서 무엇을 확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선정과 분류

교수・학습 현장에 생성형 AI가 급속히 도입됨에 따라,[1] 중국어문학 영역에서도 관련 연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양적 증가가 곧 논의의 다양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의 논의가 주로 무엇을 다루었고 무엇을 다루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

1) 교육부는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과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의 AI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2026.2.23.),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 공고」,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401&lev=0&m=020402&opType=N (검색일: 2026.9.8.) ; 교육부 보도자료(2026.3.30.),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744&lev=0&m=020402&opType=N(검색일: 2026.9.8.)

www.kci.go.kr

기에 있다.

중국어문학 분야에서 AI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한나(2025:85-112)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4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관련 연구 동향을 탐색기・성장기・급증기로 정리한 바 있다. 선행 연구가 AI 기반 중국어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면, 본고는 그 대상을 중국어문학으로 확장하고 그 가운데 문학 영역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는 먼저 중국어문학 분야에서의 AI 관련 연구의 규모와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CI의 학술지 분류 체계 중 [인문학] - [중국어와문학]에서 '인공지능'과 'AI'를 검색어로 제목・주제・초록・본문을 포함하는 [전체] 필드를 검색한 결과(2026.8.5. 기준), 각각 336편, 318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한 뒤, 생성형 AI(Claude)를 통해 논문 ID를 기준으로 두 파일을 대조하여 중복 논문을 제거하고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하였다.[2] 대조 결과, 'AI'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318편은 모두 '인공지능' 키워드 검색 결과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공지능' 혹은 'AI'를 키워드로 하는 논문 총 336편의 제목, 키워드(한국어 및 외국어), 초록을 정성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전수 조사하고, 검색 노이즈에 해당하는 159편을 우선 제외하였다. 노이즈 처리한 논문은 ① 검색어의 로마자 'ai' 병기가 중국 인명(張愛玲, 艾青, 艾未未 등) 및 한자 '愛', '哀' 등과 일치하여 검색된 경우, ② 검색어가 논의 대상이 아닌 초록・참고문헌 등 서지정보에 포함되어 검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③ 중국어문학이 아닌 경제・경영 분야에 속하는 경우로 구분된다.[3] 직접 관련이 없는 논문 28편을 2차로 제외하였다. 여

2) Anthropic, Claude Opus 5. (2026.9.8. 재검증) 대조 결과는 저자가 원자료와 대조하여 최종 검증하였다.

3) 예컨대 ①은 정호준(2011), 김자은(2021), ②는 구현아・신수영・엄지(2025), ③

www.kci.go.kr

기서 '직접적 관련성'은 학습과 추론에 기반한 인공지능을 교육의 매개, 연구의 도구, 연구의 대상 가운데 어느 하나로 직접 다루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세 범주는 이후 선정 논문의 유형 분류에도 적용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디지털 교육 도구 활용 연구와[4] 인공지능을 분석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 일반을 논하는 포스트휴먼 담론 연구를 제외하였다. 다만 계량 분석 및 말뭉치 활용 연구의 경우, 분석 기법 자체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이상의 검색・선별을 거쳐 총 149편의 논문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차 선별에서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본고의 관심이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이 중국어문학 연구와 교육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국어문학 교육 설계에 필요한 요소를 탐색하려는 본고의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메타버스 등 일반적인 디지털 교육 도구의 활용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계량 분석 연구는 그 자체로 교육적・학술적 의미를 지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다루는 연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이하에서는 선정된 149편의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은 남대엽(2018)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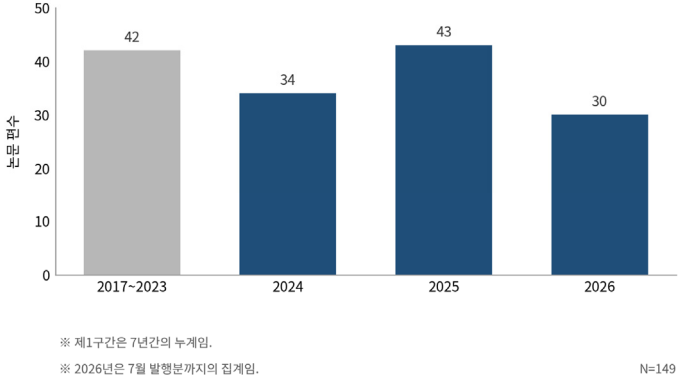
4) 본고에서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기술로 한정하며, 이 점에서 에듀테크(edutech)와 구분된다. 물론 양자는 겹치는 영역이 있으나, 메타버스・학습용 협업 툴・디지털 교재와 같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에듀테크가 별도로 존재한다. 본고가 인공지능 기능을 수반하지 않는 디지털 교육 도구 활용 연구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때문이다.

www.kci.go.kr

Ⅲ. 중국어문학 교육의 AI 활용 연구 현황

본 장에서는 14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발행 추이와 유형별 연구 현황을 살펴본다. 본고의 주된 관심은 인공지능 교육 활용 연구에 있으나, 이것이 전체 관련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성격을 파악하려면 다른 유형의 연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관련 연구의 연도별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5)]



〈그림 1〉 KCI [중국어와문학] 분야 AI 관련 연구의 연도별 추이

제1구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설정하고, 2024년 이후는 개별 연도로 표기하였다. 2017년부터 관련 논문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모든 연도를 동일 간격으로 설정할 경우 2024년을 전후한 증가 폭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구간 설정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제1구간에 발표된 논문은 총 42편(연평균 6편)이었으나, 2024년에는 한 해에만 34편이 발표되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22년 11월 30

5) Anthropic, Claude Opus 5. (2026.9.8. 재검증). 수치는 저자가 원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하였다.

www.kci.go.kr

일 ChatGPT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 학계의 연구 성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25년에는 총 43편이 발표되었으며, 2026년은 KCI에 탑재된 7월 발행 논문까지 30편이 집계되었다. 7개월간의 집계를 단순 환산하면 연간 50편 안팎에 이르므로, 2026년의 연간 발표 편수는 2025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국어문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어문학 전반의 흐름 속에서 가늠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KCI 검색을 진행한 결과(최종 검색일 2026.8.8.), [한국어와문학] 분야 497편, [영어와문학] 분야 484편, [일본어와문학] 분야 81편, [독일어와문학] 분야 80편이 확인되었다. 이는 세부 선별을 거치지 않아 오검색 및 노이즈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야별 연구 규모를 직접 비교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가 여러 어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서 살펴본 중국어문학 분야의 증가세 또한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2차 선별의 기준으로 삼은 세 범주에 따라 개별 연구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를 '① 교육 활용 ② 연구 방법 활용 ③ AI 자체 연구'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6] 인공지능을 교수・학습의 매개로 삼은 경우는 '교육 활용'으로, 인공지능을 자료 분석 등 연구의 도구로 삼은 경우는 '연구 방법 활용'으로, 인공지능을 명시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기술이나 제도, 문화적 재현을 다룬 경우는 'AI 자체 연구'로 명명하였다. 유형별 연구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 정광훈(2026:139)은 국내 AI와 중국문학 연구의 방향을 "AI 스스로의 학습과 창작, 연구와 분석 도구로서의 AI, 그리고 AI를 활용한 교육"으로 나누었다. 본고의 유형 구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되 연구 범위를 중국어문학 분야 전반으로 확장하고, KCI 키워드 검색 및 선별 과정을 거쳐 확정된 149편을 전수 조사하여 각 유형의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였다.

www.kci.go.kr

〈표 1〉 KCI [중국어와문학] 분야 AI 관련 연구의 유형별 현황

유형	세부 주제 예시	편수	비율 (%)[7]
① 교육 활용	어학・문학・번역・교육과정 및 도구 개발 등	57	38.3
② 연구 방법 활용	언어 분석 및 언어 모델 구축・번역 성능 분석 등	49	32.9
③ AI 자체 연구	국가 정책 및 제도・문학 및 영상 속 AI 표상・콘텐츠 생산 구조 속 AI 등	43	28.9
합계		149	100.1

<표 1>에서 보듯 유형별로는 교육 활용 연구가 57편(38.3%)으로 가장 많고, 연구 방법 활용 연구가 49편(32.9%),[8] AI 자체 연구가 43편(28.9%)[9]으로 뒤를 잇는다.

유형②는 인공지능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거나 그 산출물을 분석 자료로 삼은 연구로, 고전문학 분야의 자료 분석 연구, 번역 성능 분석 연구, 어학 분야의 언어 모델 구축 연구가 함께 포함된다. 이는 방법론으로서의 인공지능이 어문학 분과 구별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③은 중국의 인공지능 정책 및 윤리 제도를 다룬 연구와, 웹소설・드라마 등의 문화 텍스트에 재현된 인공지능의 표상 및 콘텐츠 생산 구조에서 인공지능의 작용을 다룬 연구로 나뉜다. 전자는 사회과학적 접

7) 각 영역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하였으며, 이에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유형②에 속하는 논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자료 분석 연구로는 이은진(2023), 번역 성능 분석 연구로는 남철진(2025), 언어 모델 구축 연구로는 박정구・유수경・박민준・강병규(2024), 오유정・문유미(2026) 등이 있다.

9) 유형③에 속하는 논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정책・제도 연구로는 김동하(2018), 이재승(2022) 등이 있고, 텍스트 관련 연구로는 김윤수(2023), 이화진(2025) 등이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제도, 드라마 속 인공지능 로봇, 웹소설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의 작용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을 특정하지 않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논하는 포스트휴먼 담론 연구와 구별된다.

www.kci.go.kr

근을, 후자는 중국현대문학 연구의 시각을 취한다. 유형②와 ③이 각각 연구의 도구와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인공지능을 다룬다면, 인공지능을 교육의 매개로 삼아 그것이 학습자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를 묻는 연구는 유형①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유형① 교육 활용에 해당하는 57편을 주로 다룬다. 이 유형의 연구는 2024년 이후 급증하였으나 특정 영역에 뚜렷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세부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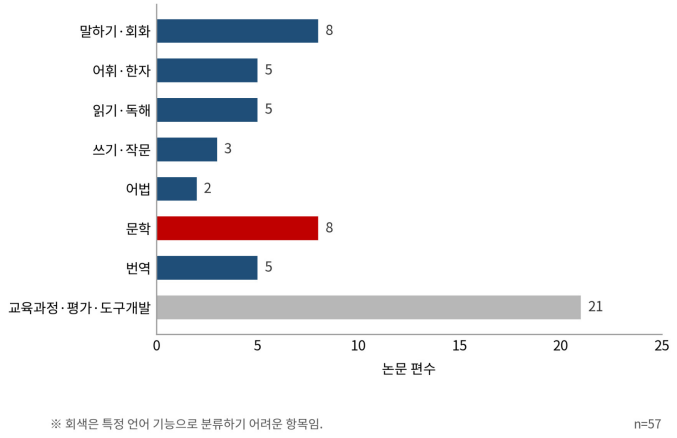
<그림 2>는 인공지능을 중국어문학 교육에 활용한 연구 57편의 세부 영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항목의 분류는 해당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언어 기능과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구 개발이나 평가를 다룬 연구라도 특정 언어 기능이나 교육 내용을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해당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10] 교육과정 설계, 범용 학습 도구 개발, 교수자 인식 조사와 같이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21편은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였다.[11]

---

10) 예컨대 박민준(2026)은 학습 플랫폼 개발 연구이나 성어・헐후어 등 관용 표현의 학습을 대상으로 하고, 고은미・최향란・박흥수(2026)는 평가 문항 생성 연구이나 독해 문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각각 '어휘・한자'와 '읽기・독해'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박정원(2025)은 어휘・쓰기・발음 등 여러 기능의 웹앱 사례를 아우르며 교육자의 웹앱 제작 방법 자체를 다루므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1) 이 항목에는 「생성 기반 AI와 중국어 교육의 공전 가능성에 관한 초탐」(하두진 2023), 「Vibe Coding 기반 중국어 교육 웹앱 제작 연구 − Replit 플랫폼을 중심으로」(박정원 2025),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중국어 학습지도안 개발」(홍소영 2025), 「중국어 AIDT 도입에 대한 중등 중국어 교사의 수용 태도 분석」(서홍기 2025) 등이 포함되며, 특정 언어 기능의 교수・학습보다는 인공지능의 도입 조건 자체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2020년 2편이 발표된 이후 2023년 2편, 2024년 4편, 2025년 9편, 2026년 7월 기준 4편으로 꾸준히 축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www.kci.go.kr



〈그림 2〉 KCI [중국어와문학] 분야 AI 교육 활용 연구의 세부 영역별 분포

교육 활용 연구 57편 가운데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21편을 제외하면, 어학 23편, 문학 8편, 번역 5편으로 나타난다. 어학은 관련 연구가 가장 집중된 영역으로, 말하기・회화 8편, 어휘・한자 5편, 읽기・독해 5편, 쓰기・작문 3편, 어법 2편 등 세부 기능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중 유일하게 듣기를 주된 대상으로 한 연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듣기는 이해의 결과가 학습자의 산출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텍스트 중심의 생성형 AI가 직접 다루기 어려운 음성 자료를 전제로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듣기 연구의 공백은 인공지능을 통한 결과 확인이 용이한 영역에서부터 교육적 활용이 시작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2>는 어학 세부 영역별 대표 논문을 각 2편씩 정리한 것이다.

www.kci.go.kr

〈표 2〉 AI 교육 활용 연구 중 어학 영역의 세부 영역별 대표 논문

세부 영역	논문 제목 (저자 연도)
말하기・회화	AI 음성 인식 ChatGPT 앱의 중국어 수업 말하기 영역 활용 방안 (권아린 2024)
	GPTs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심 중국어 회화 수업 방안 탐색 - 자기주도학습과 맞춤형 피드백 전략 (이은민 2025)
어휘・한자	한자・중국어 어휘 교육에서 데이터 주도 학습(DDL)과 생성형 AI의 통합 -대학 전공 교과목 사례에 대한 파일럿 연구 (백종이 2026)
	인터랙티브 중국어 관용어 학습 AI 플랫폼 LexiChinese의 설계와 활용 (박민준 2026)
읽기・독해	스키마 이론 및 생성형 AI 기반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 설계 연구 (임연정 2026)
	생성형 AI 기반 자동문항생성 실험과 분석— 대학교 '고급 중국어' 진단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고은미 외 2026)
쓰기・작문	중국어 교육에서 ChatGPT를 활용한 상호작용 수업 방안 모색 — 중국어 작문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채예령 2024)
	AI 활용 新HSK6급 쓰기 교육을 위한 프롬프트 설계 —考 (김선아 2025)
어법	ChatGPT 기반 현대중국어 어법 수업 설계 모색 — '了' 어법 항목을 중심으로 (임지영・송진희 2025)
	중국어 학습자 코퍼스 오류 유형 분석과 자동 피드백 모델 연구 — ChatGPT와 Claude를 중심으로 (강병규 2025)

※ 각 논문의 서지 사항은 참고문헌 참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연구가 어학 영역에 집중된 데에는 두 가지 특징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음・어휘・어법 등에서 학습 결과의 정오(正誤) 판정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분과적 특징과,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도구적 특징이 그것이다. 앞서 살펴본 듣기 연구의 공백 역시 이러한 경향과 맞닿아 있다.

한편, 번역 교육을 다룬 논문은 총 5편에 그쳐 어학 영역과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유형②에 속하는 연구 방법 활용 논문 가운데 ChatGPT의 번역 성능이나 신경망 기계번역(NMT)의 산출물을 다룬 논문이 6편에 이르는 점을 상기하면,[12] 인공지능 번역 성능에 대한 관심이 번역

www.kci.go.kr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 소폭 앞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학 교육을 다룬 연구는 총 8편으로, 말하기・쓰기 등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23편이 축적된 어학 영역의 3분의 1 남짓에 그친다. 문학 교육 연구 8편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AI 교육 활용 연구 중 문학 영역 논문 목록

하위 영역		논문 제목 (저자 연도)
1	소설	인공지능 시대 중국소설 교육모델 개발(김지선 2023)
2	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국시 학습과 교학 방안 고찰 —『당시삼백수』와 인공지능 九歌・챗GPT를 대상으로 (김지영 2024)
3	시가	AI 챗GPT와 딥시크를 활용한 중국시 연구와 학습 (김지영 2025)
4	산문・고사[13]	챗GPT_PBL 기반 한문법 교수학습 사례 연구 － 계륵 고사성어를 중심으로 (정운조 2025)
5	시가	『당시화보(唐詩畫譜)』 및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한 당시(唐詩) 교육 방법 제안 (김기원 2026)
6	고전소설	중국 고전소설 스토리텔링 수업 과제의 AI 활용과 그 효과 (정광훈 2026)
7	문학사	중국문학사 수업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 양상과 학습 능력 향상 분석 — 발표 과제를 중심으로 (안인 2026)
8	현대소설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국 단편소설 영상화 프로젝트 수업 연구 —한중 대학생 교양교육 사례 분석 (조아라 2026)

※ 8편 중 조아라(2026)를 제외한 7편이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함.

※ 각 논문의 서지 사항은 참고문헌 참조.

12) 유형①의 번역 교육 연구로는 이아형(2023) 등이 있다. 유형②에 속하는 번역 관련 연구로는 우취영・박지숙(2024), 박정희・강병규(2024), 강표숙(2025), 이순미(2025), 남철진(2025), 박교리(2026) 등이 있다. 이들은 번역 교육이 아닌 인공지능 번역의 산출물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형①의 번역 교육 연구 5편과 구별된다. 이 가운데 박교리(2026)는 논문 표제에 ‘번역 활동’을 제시하고, 학습자의 번역문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며 번역 교육을 위한 프롬프팅 제언을 포함한다. 그러나 연구의 중심은 어휘적 결속성 이론을 적용하여 인간번역・신경망 기계번역・챗GPT 번역의 산출물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 과업에 적합한 프롬프트를 제안하는 데 있어, 교수・학습 설계나 교육 효과 확인을 직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유형②로 분류하였다.

www.kci.go.kr

<표 3>의 연구를 검토하면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 먼저 시기적으로, 문학 교육 연구는 김지선(2023)을 필두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 출발은 말하기・회화 영역(2019년)과 교육과정 및 도구 개발 관련 연구(2020년)보다 3~4년 늦다.[14]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학습 결과의 정오 판정이 비교적 명확한 어학 영역과 교육 일반의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먼저 수용되고, 문학 영역은 시차를 두고 뒤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대상 측면에서, 문학 교육 연구 8편 가운데 중국 현대 단편소설을 다룬 조아라(2026)를 제외한 7편은 모두 고전소설, 당시(唐詩), 고전문학사 등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한다.[15] 이는 인공지능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유형③의 문학 연구가 주로 현대문학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16] 이러한 편중은 고전문학 교육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이라는 문제의식이 인공지능 활용으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17]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교수・학습 설계를 포함한 활용 방안의 제안에 비해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

13) 정운조(2025)의 분류에 대해서는 부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표제와 키워드가 보여주듯 한문법 교수학습을 다루고 있어 어학 영역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으며, 저자 스스로도 초록과 키워드에서 이 연구를 “한문법 교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문법 개념만을 다루지 않고, 『삼국지』「위지」, 「양수전」에 수록된 계륵 ‘고사’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탐색하는 작업을 선행한 뒤 문법 분석으로 나아가며, 고사의 상황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확장 활동으로 마무리된다. 본고의 분류 기준은 해당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와 학습 목표의 구성에 있으므로, 이 연구는 중국 고전문학의 교수 설계와 맞닿은 지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학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저자의 규정과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14) 본고의 검색 조건에서 해당 영역의 최초 논문은 말하기・회화 영역의 한희정・정유선(2019), 교육과정 및 도구 개발 관련 영역의 고권태・이효영(2020)이다.

15) 이 밖에 김기원(2024)은 최호(崔護)의 <제도성남장(題都城南莊)>에 대한 동일한 질문을 코파일럿, 챗GPT, 제미나이에 입력하여 생성된 할루시네이션 사례를 제시하고, AI 시대 고전문학 교수자의 역할과 고전 학습의 의미를 모색하였다. 다만 KCI에 [복합학]-[학제간연구]로 분류되어 본고의 검색 조건 밖에 있으므로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16) 김윤수(2023), 이화진(2025) 등 유형③의 문학 텍스트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17) 이은주(2024:57-58) 등 참고.

www.kci.go.kr

기존 연구는 대개 수업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수업 사례를 다룬 경우에도 수업 이전 또는 진행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인공지능 활용 수업 이후 학습자의 사고와 학습 전략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수・학습 과정에 'AI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육적 성과가 담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공백이다.

이런 점에서 정광훈(2026), 안인(2026), 조아라(2026)가 '효과'를 연구 문제에 명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 가운데 다국적 교양 수업에서 중국 현대 단편소설을 다룬 조아라(2026)는 본고의 주요 범위인 고전문학 교육과 대상과 맥락을 달리하므로,[18] 아래에서는 정광훈(2026)과 안인(2026)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광훈(2026)은 고전소설 스토리텔링 수업의 기말 과제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한 25건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AI 활용 양상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실제 입력된 프롬프트를 제시하였다. 논문에서는 고득점 과제에서 AI 활용이 두드러진다는 상관성을 언급하면서도 "교수자의 평가 점수가 해당 과제의 우수성을 전적으로 보장하진 못하지만"(정광훈 2026:159)이라는 유보를 두었다. 안인(2026)은 '중국근세문학사' 수강생 25명의 발표 과제를 대상으로 생성형 AI의 활용도와 산출물 신뢰도, 오류 인지 및 수정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AI 활용의 성과가 학습자가 이미 보유한 전공 역량에 기반한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다만, '학습 능력 향상'의 판단이 학습자의 자기 보고식 설문에 근거하고 사전・사후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학습 성취의 변화는 후속 과제로 남는다.

두 연구는 이 분야의 관심이 활용 방안 제안에서 교수・학습 효과의

18) 조아라(2026)는 학습자의 언어・문화적 배경이 AI 활용의 양상과 산출물의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중 두 학생 집단의 비교를 통해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www.kci.go.kr

확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효과의 근거가 각각 교수자의 평가 점수와 학습자의 자기 인식에 머물러 있어, 학습자의 이해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여전히 열려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공백이 연구자의 무관심이라기보다 고전문학 영역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정오 판정이 비교적 명확하고 즉각적인 어학 영역과 달리, 고전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개별 단어의 해독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거쳐 학습자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가깝다. 따라서 그 성과는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으며 단일한 척도로 수치화하기도 어렵다. 이 영역에서 학습 효과 검증이 축적되지 못한 것은 이에 적합한 측정의 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상의 논의는 문학 교육 연구 8편이라는 소수 사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AI 활용 방안의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이 논의를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뒤로 미루기는 어렵다. 측정의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검증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이다.

Ⅳ. 생성형 AI 이미지화를 통한 고전 리터러시 진단 시론 — 유영 〈우림령〉의 사례

본 장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이루어진 교수자의 관찰과 피드백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를 통해 이 물음을 검토한다. 이 사례는 학습자의 산출물과 프롬프트, 수정 이력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자료가 아니므로, 진단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 산출물을 매개로 무엇을 확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론적 예시이다.

고전문학 교육은 원문 해독에 그치지 않고 작품에 담긴 정서와 사상

www.kci.go.kr

을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 뒤, 이를 학습자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재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AI 시대에는 여기에 더해 고전 텍스트를 검색・해석・이해・변용하여 새롭게 재창작하는 과정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종합적 역량을 '중국 고전 리터러시'로 지칭한다.[19] 본고는 이 역량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생성형 AI가 산출한 이미지를 매개로 확인하고자 한다.

생성형 AI가 산출한 이미지와 작품 원문 사이에 어긋나는 지점이 발견될 때, 그것이 학습자가 입력한 프롬프트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생성형 모델이 임의로 생성한 결과인지는 최종 산출물만으로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인물 위치나 자세, 복식은 물론 제화시나 낙관과 같은 양식에 이르기까지 프롬프트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가 임의로 표현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산출물이 원문에 부합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학습자의 읽기를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살펴보는 일을 진단(診斷)으로 명명하고, 이를 두 층위로 나눈다. 첫째는 프롬프트와 그 이미지를 통해 학습자의 읽기가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학습자가 스스로 이미지의 어긋남을 식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고전 리터러시의 진단은 최종 산출된 이미지 한 장이 아니라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대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어긋남의 출처에 따라 진단되는 내용도 달라진다. 어긋남이 프롬프트에 이미 들어 있다면 그것은 학습자가 작품을 어느 정도의 밀도로 이해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반대로 프롬프트에 없는

19) 리터러시(literacy)는 라틴어 'littera'에서 유래한 말로 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文解力)'으로 번역된다. 리터러시의 정의는 시기와 대상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등과 같이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 및 기술 습득과 활용 능력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유미 2021:284-287 참고). 본고에서 '중국 고전 리터러시'는 시(詩), 사(詞), 소설(小說) 등 중국 고전문학 작품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넘어 중국 고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품에 내재된 감정과 사상을 이해하고, 이를 현재의 삶과 문제의식에 비추어 재해석함으로써 현대적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종합적 인문 역량을 지칭한다.

www.kci.go.kr

요소를 생성형 AI가 임의로 생성했다면, 진단의 대상은 학습자가 그 요소를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알아차렸는가로 옮겨 간다. 두 경우 모두 학습자의 이해와 관련되지만, 전자는 읽기의 결과를, 후자는 그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것을 진단한다.

이때 교수자의 검토는 진단의 대상이 아니라 두 층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교수자는 이미지의 어긋남을 지적하고 답을 주는 대신, 학습자가 자신의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원문에 비추어 보도록 질문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미지와 원문 사이의 어긋남을 스스로 알아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시론적 예시를 통해 이 구도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

필자는 2025년 1학기에 운영한 '중국문화특강' 수업에서 북송 사인 유영(柳永)의 사(詞) <우림령(雨霖鈴)>(寒蟬凄切)을 한글 해석과 원문으로 함께 읽은 뒤, 학습자가 그 감상을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형식의 결과물로 구현하도록 하였다. 텍스트 기반의 감상평은 물론 한시 창작, 이미지・음악・영상 생성 등 형식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고전 작품에 대한 접근 부담을 낮추고 감상 공유를 통해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어(詩語) 분석과 텍스트 감상 단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이해의 공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작업은 수업 후 과제가 아닌 수업 현장에서 감상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은 결과물을 전체와 공유하고 미니 발표를 하였다.[20] 아래는 <우림령> 작품과 이에 대한 감상 결과물 이미지이다.

20) 해당 수업에서는 공유 협업 도구인 패들렛(Padlet)을 사용하였으며, 학생은 자신이 생성한 결과물과 프롬프트를 전체와 공유하고, 교수자는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www.kci.go.kr

[…]
(하편)
다정할수록 이별은 슬프게 마련인데,
더욱이 쓸쓸한 이 가을에 어이 견디나!
오늘 밤 술 깨면 어디쯤 가 있을까?
버들 늘어선 물가에 새벽 바람 불고 조각달 걸렸으리.
이렇게 떠나가 세월이 흐르면
호시절 좋은 경치 무슨 소용이며
갖가지 그윽한 정취 우러난다 해도
그 누구에게 이 마음 토로하리? (유영 지음, 송용준 옮김 2007:60)



〈그림 3〉〈우림령〉 학생 결과물의 재생성 이미지(필자 재생성)

<그림 3>은 수업에서 학생이 생성한 이미지를 필자가 당시 학생에게 제시한 피드백과 관찰 기록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학생의 원본 산출물이 아닌 시론적 예시이다.[21] 이하에서 서술할 세 검토 지점은 모두 실제 수업에서 교수자가 학생의 결과물과 프롬프트를 보고 피드백으

www.kci.go.kr

로 제기한 것이며, 학생 스스로 먼저 어긋남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첫 번째는 텍스트가 명시하지 않은 정보가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문제이다. <그림 3>은 인물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으로, 작품 원문에는 승선한 인물의 성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수자는 이에 대해 "작품 화자가 왜 여자라고 생각했나요? 당시 송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이동이 지금처럼 자유로웠을까요?"라고 물었다. 이 질문은 답을 제시하는 대신, 여성이라는 설정이 학습자 자신의 프롬프트에서 나온 것인지, AI가 원문의 공백을 임의로 채운 것인지를 학습자가 직접 점검하게 한다. 이에 대해 학생은 화자를 여성으로 생각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여성의 승선은 생성형 AI가 임의로 생성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읽기에서 비롯된 설정이며, 원문에 없는 정보를 읽기의 결과로 받아들인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원문에 있는 정보와 원문에 없는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 곧 텍스트의 공백을 인지하는 능력이며,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송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두 번째는 작품의 시간 구조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今宵酒醒何處(오늘 밤 술 깨면 어디쯤 가 있을까?)"는 작품 전체 문맥에서 보면 현재 눈앞의 장면이 아닌, 해질 무렵 강가에서 이별한 주인공이 오늘 밤에

---

21) 수업 현장에서 결과물 활용에 대해 구두로 동의를 얻고 원본 파일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학기 종료 후 해당 학생의 졸업으로 원본 파일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필자가 학생에게 제공한 피드백과 관찰 기록에 근거하여 이미지를 재생성하였다. 재생성에 사용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다.
북송 柳永의 <雨霖铃> 하편을 그림으로 나타낼 거야. 多情自古伤离别, 更那堪,冷落清秋节! 今宵酒醒何处? 杨柳岸, 晓风残月. 此去经年, 应是良辰好景虚设. 便纵有千种风情, 更与何人说? 배를 타고 떠나면 이별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주인공의 슬픔을 강조해서 그려줘. <중요> 동일한 배경이지만, 이번에는 작품을 오독한 경우로 가정하고 이미지를 생성할거야. 배를 타고 떠나는 인물은 남성이 아닌 "여성"일 것. 작품의 시간 배경은 '한밤'일 것.
프롬프트 중 '여성'과 '한밤'의 지정은 당시 교수자의 피드백에 근거한 것이다. (같은 대화에서 원문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먼저 생성한 뒤 이어서 입력한 프롬프트이다.) 재생성 시점은 2026년 2월로, 수업 진행 시점 및 본고 작성 시점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Google, Nano Banana (2026.2.3. 생성)

www.kci.go.kr

느끼게 될 고독과 외로움을 미리 떠올리는 대목에 해당한다. 따라서 '今宵'를 야간 장면으로 시각화한 것 자체를 원문과의 어긋남으로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미지 전체가 한밤의 장면으로 그려져 현재의 이별과 미래에 대한 상상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수자가 "이 작품에서 이별의 순간이 정말 한밤중이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드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구별은 적어도 현재까지의 AI 모델로서는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AI는 작품 표면에 드러난 시어를 옮길 뿐이므로, 중첩된 시간 가운데 어느 시점을 그릴 것인지는 그 구조를 파악한 학습자가 직접 지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지점의 어긋남은 출처와 관계없이 학습자의 프롬프트, 곧 읽기의 결과를 진단하는 근거가 되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개별 시어의 의미를 넘어 작품의 시간 구조를 파악하는 이해이다.

세 번째는 학습자의 해석 경로에 대한 문제이다. 본 수업에서는 이별의 순간과 그 이후를 떠올리는 화자의 시점에 주목하여 <우림령>을 읽었는데, 학생이 생성한 이미지에서는 여성 인물이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었다.[22] <우림령>의 화자를 남성으로 보는 것은 유영 사 연구에서 일반적인 인식이나, 작품 자체에 화자의 성별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미지만으로는 이 여성이 작품의 화자인지, 이별의 대상인지, 혹은 작품의 정서를 형상화한 인물인지 확정하기 어려우며, 확인해야 할 것은 학습자가 인물을 누구로 설정하였고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는가이다. 앞서 인용한 교수자의 질문에 학생은 화자를 여성으로 생각했다고 답하였다. 수업에서 <우림령>과 함께 감상한 온정균(溫庭筠)의 <보살만(菩薩蠻)>(小山重疊金明滅)과 이청조(李淸照)의 <성성만(聲聲慢)>(尋尋覓覓)은 모두 여성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읊조리는

22) 이는 여성 인물에 대한 처리를 다룬다는 점에서 첫 번째 사례와도 맞닿는 부분이 있다. 본고는 첫 번째 지점을 인물의 승선과 이동이라는 공간 처리 문제와 텍스트의 공백을 인지하는 문제로 한정하였고, 세 번째 지점은 여성 화자라는 초기 사(詞)의 주요 특징 및 유영 사의 특징과 결부하였다.

www.kci.go.kr

작품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학생이 앞서 학습한 두 작품의 읽기 관습을 <우림령>에 그대로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했다는 점은 학습자의 답으로 확인되었으나, 그것이 앞선 두 작품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교수자의 추론이다. 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르 읽기 관습의 전이(轉移)를 학습자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가이며, 이를 되짚어 보려면 사(詞) 장르와 작가 유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상 세 검토 지점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우림령〉 재생성 이미지의 검토 지점과 진단 내용

검토 지점	진단되는 이해 영역	판별에 요구되는 근거	진단 근거
여성 인물의 승선과 이동	텍스트 공백의 인지	원문 대조・송대 사회문화 이해	교수자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
'今宵'의 시각화	작품 시간 구조 이해	작품 내적 문맥 파악	AI 모델이 수행할 수 없는 구별
여성 인물의 정체 설정	장르 관습 전이에 대한 자각	사(詞) 장르・유영 사의 특징 이해	학생의 답・교수자 추론

검토한 세 지점은 모두 이미지와 원문 사이의 어긋남에서 출발하지만 진단 내용과 근거는 각각 다르다. 이는 생성형 AI 결과물에서 검토가 필요한 지점의 성격을 판단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생성된 이미지 너머 학습자의 감상・이해・결과 도출 과정 전반을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림령> 사례에서 어긋남을 처음 제기한 것은 모두 교수자였다. 이는 본고에서 설정한 진단의 둘째 층위, 즉 학습자가 어긋남을 스스로 식별하는 능력이 여기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과 교수자의 질문이 그 능력을 이끌어 내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전 리터러시는 학습자가 어긋남을 알아차리고 피드백을 거쳐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원문과의 거리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www.kci.go.kr

이 지점에서 고전문학 교육은 정답과 오답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영역과 구별된다.

이상 논의를 통해 확인했듯, 생성형 AI가 산출한 이미지는 그 완성도를 평가할 대상이라기보다, 학습자가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를 드러내는 진단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닌다. 다만 이 진단이 성립하려면 결과물 이미지 한 장이 아닌 프롬프트 전체와 수정 이력, 피드백 이후 학습자의 반응과 성찰 기록이 두루 필요하다. 이는 진단의 첫째 층위와 둘째 층위를 구분하고, 각 검토 지점에서 어긋남을 제기한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원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본 사례의 한계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가 인공지능 활용의 성과를 AI 사용 유무나 학습자 만족도로 판단해 온 데 비추어 보면, 고전문학 교육에서 확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산출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학습자가 그것을 읽어 내고 수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Ⅴ. 나오며

본고는 AI를 활용한 중국어문학 교육 연구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가운데 중국 고전문학 교육이 놓인 자리와 그 공백의 성격을 논의하였다. KCI [중국어와문학] 분야에서 본고의 기준으로 검색・선별한 149편을 분석한 결과, AI 관련 연구는 2024년을 기점으로 급증하였으나 교육 활용 연구는 어학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문학 교육 연구는 8편에 그쳤다. 문학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수・학습 설계를 포함하는 활용 방안의 제안에 비해 그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시도가 부족하다는 점이며, 본고는 그 원인을 고전문학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측정의 틀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서 찾았다.

이에 본고는 AI 활용 중국 고전문학 교육의 효과 검증에 앞서, 무엇을 확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묻고, 송사 <우림령>을 생성형 AI로

www.kci.go.kr

이미지화한 수업 사례를 시론적 예시로 재구성하여 살펴보았다. 산출물이 학습자의 읽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진단으로 명명하고, 이를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통해 읽기의 결과를 확인하는 층위와 학습자가 어긋남을 스스로 식별하는지를 확인하는 층위로 나누었다. 이미지와 원문 사이의 어긋남은 그 출처가 프롬프트인가 AI의 임의 생성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층위로 구분되며, 그 출처는 프롬프트와 이미지 대조, 학습자에게 근거를 묻는 교수자의 질문을 통해 가려진다. 사례에서 확인한 세 가지 검토 지점은 각각 텍스트의 공백에 대한 인지, 작품 시간 구조에 대한 이해, 장르 관습 전이에 대한 자각을 진단할 단서가 된다.

논의를 통해 본고는 생성형 AI 이미지를 학습자의 읽기를 가시화하는 진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고전문학 교육에서 확인의 대상은 산출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학습자가 그것을 읽어 내고 수정하는 과정임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고의 사례는 학습자의 원본 산출물과 프롬프트, 수정 이력을 확보하지 못한 재구성 사례이며, 세 검토 지점 역시 모두 교수자의 피드백으로 제기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를 실제 평가 설계로 구현하려면 학습자의 프롬프트 전체와 수정 이력, 피드백 이후의 응답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학습자가 어긋남을 스스로 식별하는 진단의 둘째 층위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고는 수업을 준비하며 마주한 고민에서 출발하였고, 그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고전문학 교육에서 무엇을 확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따져 묻는 일은 곧 이 시대의 고전 교육이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다시 묻는 일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그 물음을 꺼내 놓은 셈이다. 그리고 이에 답하는 일은 AI 시대의 중국 고전문학 교육이 마주한 과제일 것이다. 본고의 검토가 AI를 활용한 중국 고전문학 교육의 설계와 평가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www.kci.go.kr

참고문헌

강병규(2025),「중국어 학습자 코퍼스 오류 유형 분석과 자동 피드백 모델 연구 — ChatGPT와 Claude를 중심으로」,『중한연구학간』 38, 중한연구학회, 1-33.

강표숙(2025),「丁玲 문학과 신경망(NMT) 번역 — 여성적 서사의 기계적 수용 가능성 —」,『중국어문학』99, 영남중국어문학회, 107-134.

고권태・이효영(2020),「인공지능 챗봇의 중국어 교육 활용 방안 탐색」,『중국학』72, 대한중국학회, 215-233.

고은미・최향란・박홍수(2026),「생성형 AI 기반 자동문항생성 실험과 분석 — 대학교 '고급 중국어' 진단평가 문항을 중심으로」,『중국어문논역총간』58, 중국어문논역학회, 275-300.

구현아・신수영・엄지(2025),「포스터 부인의 An English and Chinese pocket dictionary, in the Mandarin dialect(1893) 연구 - 체재와 음운체계를 중심으로」,『중국학』91, 대한중국학회, 141-180.

권아린(2024),「AI 음성 인식 ChatGPT 앱의 중국어 수업 말하기 영역 활용 방안」,『중국어문학지』88, 중국어문학회, 395-426.

김기원(2024),「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교육방법 소고 -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국 고전시가 교육을 중심으로 -」,『지식융합연구』7-1, 글로벌지식융합학회, 75-108.

김기원(2026),「『당시화보(唐詩畫譜)』및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한 당시(唐詩) 교육 방법 제안」,『중국어문학지』95, 중국어문학회, 7-30.

김동하(2018),「중국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교육분야 규범화에 대한 연구」,『중국학』62, 대한중국학회, 243-266.

김선아(2025),「AI 활용 新HSK6급 쓰기 교육을 위한 프롬프트 설계 一考」,『한중언어문화연구』77,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3-24.

김윤수(2023),「중국 드라마 속 인공지능 로봇과의 로맨스」,『중국소설

www.kci.go.kr

논총』 70, 한국중국소설학회, 145-162.
김자은(2021),「돌아온 아이칭(艾青)의 현실인식과 고민들 - 몽롱시(朦朧詩) 비판을 중심으로」,『중국학』 76, 대한중국학회, 57-82.
김지선(2023),「인공지능 시대 중국소설 교육모델 개발」,『중국학논총』 79,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97-327.
김지영(2024),「인공지능을 활용한 중국시 학습과 교학 방안 고찰 — 『당시삼백수』와 인공지능 九歌・챗GPT를 대상으로」,『중국학보』 108, 한국중국학회, 161-183.
김지영(2025),「AI 챗GPT와 딥시크를 활용한 중국시 연구와 학습」,『중국어문학』 98, 영남중국어문학회, 103-131.
남대엽(2018),「AI에 기반한 중국 철광석가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AI 기법의 탐색적 적용-」,『중국학논총』 61, 중국학연구소, 215-232.
남철진(2025),「중국 소설의 GPT 번역 문제점 -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중심으로」,『중어중문학』 101, 한국중어중문학회, 351-382.
박교리(2026),「어휘적 결속성(Lexical Cohesion)이론을 적용한 생성형 AI 번역 활동 연구 — 인간번역・신경망기계번역・챗GPT번역 비교를 중심으로」,『중국학논총』 91,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9-57.
박민준(2026),「인터랙티브 중국어 관용어 학습 AI 플랫폼 LexiChinese의 설계와 활용」,『중국문학』 127, 한국중국어문학회, 211-238.
박정구・유수경・박민준・강병규(2024),「신경망 언어 모델 구축을 통한 중국어 문두 다중논항 어순 수용성 예측 연구」,『중국문학』 118, 한국중국어문학회, 161-189.
박정원(2025),「Vibe Coding 기반 중국어 교육 웹앱 제작 연구 – Replit 플랫폼을 중심으로」,『중국학연구』 113, 중국학연구회, 3-33.
박정희・강병규(2024),「챗GPT에 기반한 중국문학작품 번역 방법론 탐구」,『중국문학』 119, 한국중국어문학회, 169-200.
백종이(2026),「한자・중국어 어휘 교육에서 데이터 주도 학습(DDL)과

www.kci.go.kr

생성형 AI의 통합 — 대학 전공 교과목 사례에 대한 파일럿 연구」,『중국학』95, 대한중국학회, 73-108.
서흥기(2025),「중국어 AIDT 도입에 대한 중등 중국어 교사의 수용 태도 분석」,『중국언어연구』120, 한국중국언어학회, 429-456.
안인(2026),「중국문학사 수업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 양상과 학습 능력 향상 분석 — 발표 과제를 중심으로」,『중국어문학논집』157, 중국어문학연구회, 183-204.
오유정・문유미(2026),「LLM 기반 현대 중국어 동결식 추출 및 언어적 특징 분석」,『중국어문학논집』158, 중국어문학연구회, 85-121.
오한나(2025),「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AI 기반 중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중국학논총』85, 한국중국문화학회, 85-112.
우취영・박지숙(2024),「챗GPT 등장 이후의 인공지능(AI)과 문학 번역 — 채만식『민족의 죄인』속의 대화문을 중심으로」,『중국학보』110, 한국중국학회, 117-143.
유영 저, 송용준 역(2007),『유영 사선』, 민음사.
이순미(2025),「생성형 AI의 근대한어 번역 성능 분석 — ≪老乞大≫와 ≪朴通事≫를 대상으로」,『중국학논총』90,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79-116.
이아형(2023),「챗 GPT의 번역 수업 활용 방안 고찰 — 한중과학기술번역을 중심으로」,『중국어문학지』85, 중국어문학회, 153-176.
이유미(2021),「AI 시대의 리터러시 특성에 관한 연구 - AI 리터러시와 관계 리터러시를 중심으로」,『어문연구』110, 어문연구학회, 281-302.
이은민(2025),「GPTs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심 중국어 회화 수업 방안 탐색 - 자기주도학습과 맞춤형 피드백 전략」,『중국학』90, 대한중국학회, 1-20.
이은주(2024),「메타버스를 활용한 중국 고전 교육에 대한 소고 — <중국어 기초 고문>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중국학보』107, 한국

www.kci.go.kr

중국학회, 51-84.
이은진(2023),「중국 고전 문학 연구에서 AI 챗봇 文心一言의 활용 가능성 탐색」,『中國散文硏究集刊』15, 한국중국산문학회, 223-240.
이재승(2022),「중국의 인공지능(AI) 윤리 정책에 관한 연구」,『중국학』80, 대한중국학회, 69-87.
이화진(2025),「중국 웹소설 플랫폼의 '진화'와 AI의 작용 - 치뎬(起点)과 판치에(番茄)를 중심으로」,『중국현대문학』111,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9-57.
임연정(2026),「스키마 이론 및 생성형 AI 기반 초급 중국어 독해 수업 설계 연구」,『중국어문학논집』158, 중국어문학연구회, 245-265.
임지영・송진희(2025),「ChatGPT 기반 현대중국어 어법 수업 설계 모색 — '了' 어법 항목을 중심으로」,『중국어문학논집』150, 중국어문학연구회, 99-122.
정광훈(2026),「중국 고전소설 스토리텔링 수업 과제의 AI 활용과 그 효과」,『중국소설논총』78, 한국중국소설학회, 137-164.
정운조(2025),「챗GPT_PBL 기반 한문법 교수학습 사례 연구 – 계륵 고사성어를 중심으로」,『중국학연구』112, 중국학연구회, 33-72.
정호준(2011),「「八哀詩」初探」,『중국연구』52,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157-193.
조아라(2026),「생성형 AI를 활용한 중국 단편소설 영상화 프로젝트 수업 연구 — 한중 대학생 교양교육 사례 분석」,『중국학논총』90, 한국중국문화학회, 415-441.
채예령(2024),「중국어 교육에서 ChatGPT를 활용한 상호작용 수업 방안 모색 — 중국어 작문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 연구』44, 한국중국어교육학회, 39-60.
하두진(2023),「생성 기반 AI와 중국어 교육의 공전 가능성에 관한 초탐」,『중국인문과학』83, 중국인문학회, 411-432.
한희정・정유선(2019),「인공지능 통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매중국

www.kci.go.kr

어 교육방안 탐색」,『중국어문논역총간』44, 중국어문논역학회, 351-375.

홍소영(2025),「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중국어 학습지도안 개발」,『중국문화연구』67, 중국문화연구학회, 325-345.

교육부 보도자료(2026.2.23.),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 공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401&lev=0&m=020402&opType=N (검색일: 2026.09.08.)

교육부 보도자료(2026.3.30.),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744&lev=0&m=020402&opType=N (검색일: 2026.09.08.)

Anthropic(2026), Claude Opus 5.

Google(2025), Nano Banana.

www.kci.go.kr

ABSTRACT

AI in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Current Status and Tasks for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Education — A Preliminary Study on Diagnosing Classical Literacy through Generative AI Images of the Song *ci Yulinling*

Lee, Eunju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This study reviews research on AI-assisted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identifies a gap i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education, and sets out the tasks that this field faces. Existing studies in the literary domain have proposed ways of applying AI far more often than they have verified its educational effects. This study attributes this gap not to researchers' lack of interest but to the absence of a measurement framework and therefore seeks to define what should be examined before such effects can be verified. Taking as a preliminary example a reconstructed classroom case in which the Song *ci Yulinling* was rendered into images using generative AI, the study examines three points that require review and the grounds for judging each. It argues that AI-generated images can make a learner's reading visible rather than serve as objects of quality assessment, and that identifying discrepancies and explaining their grounds is itself classical literacy at work. This approach offers a starting point for the design and assessment of AI-assisted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education.

www.kci.go.kr

Keywords: generative AI, AI-assisted educatio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education, classical literacy, AI image generation, Song *ci*

▌논문투고일 : 2026. 09. 05
▌심사완료일 : 2026. 10. 05
▌게재확정일 : 2026. 10. 09

www.kci.go.kr